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51호

2013년 신년사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인터뷰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



2013.

1

CONTENTS

2013년 1월. 제151호

03



2013년 신년사
03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정책심포지엄 개최
04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인터뷰 -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
06 “실력, 경험, 지혜가 진정한 ‘스펙’입니다”

직원마당
08 첫눈

판례토크
09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

이용재의 잡문 노트
10 세계의 새해 음식

위원회 활동
11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발자취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4



06





신년사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조합”, 대영제국은 바로 이런 조합의 산물입니다. 만일 영국이 교활한 지도자와 **교활한 국민**의 조합이었다면 그래도 과연 대영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직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할까요? 유감이지만 난세의 호랑지도에게 탐심을 일게 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현명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결합체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이 조합”된 영국이 오히려 근대 최초의 세계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정직한 지도자와 교활한 국민의 조합”은 어떨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르치는 많은 담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논의는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훌륭한 국민되는 길을 찾고 알아서 그 길을 각자 힘써 가야 합니다. 훌륭한 국민은 정직한 국민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잘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정직한 국민은—하늘이 돕기만 한다면—현명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고, 운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면 그래도 교활한 지도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에는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남에게도 정직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정직해지기를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다만, 소리 없는 조용한 행동을 통하여, 그러면서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2013년 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1만 5,906명. 이는 2011년도 우리나라 자살자의 숫자다. 하루에 43.6명, 33분에 1명 꼴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9년째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위이고 세계적으로도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감소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1년 10만 명당 7.3명이었던 자살률이 2001년에는 14.4명, 2011년에는 31.7명으로 급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자살의 심각성을 해소해 보고자 국내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자살을 이해하고, 이를 언론보도에 적용하려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공개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김성기 교수(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백종현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각각 불교철학, 유교철학, 서양철학(인격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에 대해 강연했다.



권성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언론은 자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인의 내적 감정의 동요나 정신병리학적 측면으로만 분석하여 자살의 원인에 대한 철학적,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살에 대한 전통철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자살이라는 문제점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고 이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볼 뿐만 아니라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보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제1강연 불교철학에서의 자살에 관하여

한자경 교수는 “우리사회에 자살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의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무명(無明) 때문이다”면서, “불교의 고락관(苦樂觀) 중, ‘고락의 상대성’에 비추어 인생에서 고락은 한 짝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뿐 아니라 고통 역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인 이상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택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람들이 왜 죽지 않고 삶을 택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



한자경 교수

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살 가능자”라면서, “우리는 표층 현상(물리적 대상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심층에 집중하여 생명이 왜 존귀할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자살예방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강연 유교철학에서 보는 자살의 문제



김성기 교수

김성기 교수는 “유교의 전통사상은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최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장애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한 사연과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현대 한국사회는 유교의 생사관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과 죽음은 시대의 부조리, 역사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의 나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자살현상을 사회현상의 종합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처방하여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제3강연 인격주의 윤리에서 본 자살

백종현 교수는 “칸트는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고 하였다”면서,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자살은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이 모두 인격을 얻는 윤리적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인격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최고의 윤리적 선이 성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현 교수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권성 위원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무명(無明)을 벗어난 명(明)의 세계,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와 같은 치열한 선비정신, 윤리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다 같이 보이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언론계, 학계, 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일반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실력, 경험, 지혜가 진정한 ‘스펙’입니다”



기획재정부 김 동 연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후 거시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고졸 신화’의 주인공.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옳다고 믿는 정책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공직자로 알려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을 만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민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도 나라살림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8,500여 개의 사업을 통해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나타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돈을 더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총지출 확대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하던 재정융자를 이차(利差)만 보전하는 민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이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 경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복지형 국가를 만들자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 당국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지에 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철학 하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입니다. 우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충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복지 재정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지를 담는 그릇인 경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특히 역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알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정책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장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창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업 수가 10,000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일본은 약 20,000개, 미국은 약 30,000개 정도인 점을 보더라도 창업·창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꿈꾸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원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꼽으신다면?

공직자로서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쳐 헌신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반면에 공직자는 경쟁의 장(場)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칫 현재에 안주하거나, 사회 변화나 시대적 요구에 둔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매몰되어 다른 분야나 현장 상황과 멀어지는 ‘확신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시대적 요구에 깨어있으면서 자기중심을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잣집과 천막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으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좌절을 겪을 때 환경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난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을 높게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으로 느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도전을 피하지 말고 부딪칠 뿐 아니라, 스스로 도전 과제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상고 출신의 성공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이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누구에게나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력서에 빠져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학력이나 경력 뒤에 숨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소중한 실력, 경험, 지혜가 훨씬 중요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실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 외적인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나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늘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깨어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소신껏 하게 됩니다.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거나, 기획재정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봉사단체인 ‘희망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고전 ‘완역판’도 더 많이 읽고 싶고 지금보다 자주 소극장에서 연극이나 뮤지컬도 보고 싶습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한 혜연
연속교육팀

첫 눈

창밖에서 올해 첫눈의 눈송이가 갈광질광 바람에 불려 다닌다. 금세 바람이 잦아들자 그 내리는 모습이 아이가 차낸 이불을 찬찬히 챙겨 따뜻하게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다.

첫눈의 기억은 매년 달랐던 것 같다. 여행지에서 맞은 첫눈은 여행의 기쁨에 녹아들어 반짝였고, 대학 때 내린 첫눈은 캠퍼스의 낭만을 머금고 대학생들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언젠가 출근시간에 내린 베이징의 첫눈은 질척대는 눈처럼 온 도시를 교통마비로 이끌었다.

그 수많은 첫눈 내리는 날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2004년 상하이의 눈 내리던 날이다. 상하이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다. 겨울에도 녹음이 푸르고 꽃이 피어 비록 습기 찬 날씨에 몸을 잔뜩 움크리게 되기는 하지만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평평 내리는 눈에 비하게 되어 가을의 연장섬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렇게 어정쩡한 겨울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에 우산을 챙기고 등곳길에 나서자 푸른 나뭇잎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익숙한 겨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연이은 수업과 사이사이의 쉬는 시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나는데 구나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연 비가 눈이 되어 내렸다. 양이 적어 쌓이지도 포슬포슬 밟히지도 않았지만 슬쩍슬쩍 간보듯 내리는 눈발에 꼭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것만 같았다. 그 감질나는 하늘 아래서 온 교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이 설 틈 없이 뛰어다녔다. 아마 학교 건물 위에서 본다면 운동장은 바글바글 까만 머리통들로 가득 차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맨손으로 눈을 받아 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먹어보기도 하고 푸른 나뭇잎

을 따서 그 좁은 잎새 사이로 눈을 모으기도 하며 온갖 장난을 쳤다. 신기루처럼 하루 만에 눈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강렬해서 그 후에도 친구들과 며칠 씩이나 눈 오던 날 이야기를 하곤 했다.

문명과 떨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조미료로 잔뜩 맛을 낸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혀가 것처럼 강한 맛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해 첫눈은 나에게 원주민이 먹은 첫 조미료 음식처럼 강렬했다. 하지만 그 후 겨울마다 눈을 볼 수 있게 된 나는 조미료 음식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현대인처럼 눈을 무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눈이 내리면 더욱 짝 막힐 교통이 먼저 떠올라 미간이 찌푸려지곤 했다. 오늘까지도 잊고 있었지만, 그 날 상하이의 눈을 떠올리면 눈이 내리는 그 자체로도 즐겁고 감동적인데도 말이다. 소중한 것이 당연해지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고 만다. 눈 내리는 날과 마찬가지로 삶의 소중함도 잊혀지는 것 같다. 매일 주어지는 삶이 당연해지면서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오늘날로 빠르게 흘러간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어제에게 물어보았다. 눈이 온다고 짜증내고 비가 온다고 우울해 하지는 않았는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소중한 하루를 온전히 망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물쭈물 답을 못하는 어제를 위로하며 내일은 어제와 다른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 창밖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설렘을 담고 상하이의 그것처럼 생경하고도 아름다워 보인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첫눈 오는 날처럼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란다. 🍂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



양재규
기획팀 팀장, 변호사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입맛 당기는 기사 제목이 보여 나도 모르게(!) 클릭해 들어갔다. 잘 아는 식당에 대한 기사다. ‘리코타 치즈샐러드’나 ‘모짜렐라 토마토 파니니’ 등 먹어본 메뉴도 등장한다. 기사는 식당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가격 대비 질도 훌륭하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산뜻한 맛을 낸다. 칭찬의 압권은 조리하는 데에 몇 시간씩 걸리는 치즈나 소스까지 직접 만들어 쓴다는 것이다. 그 식당이? 정말?

요즘 광고가 아닐까 의심스러운 기사를 자주 본다. 이런 유형의 기사를 가리켜 흔히 ‘기사형 광고’라 부른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런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12.10.10. 선고 2011가합127350 판결)

경위는 이렇다. 몇몇 인터넷신문사들이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H인터넷쇼핑몰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결국, H쇼핑몰은 사기업체로 드러났고 피해자가 속출했다.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스란히 날린 피해자들은 H쇼핑몰 관련 기사를 낸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 바로 기사형 광고는 기사인가, 광고인가 하는 문제였다.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광고주의 의견 및 주장일 뿐이므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형 광고를 기사 아닌 광고로 보게 되면 언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광고라는 명백한 표시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광고로 볼 명백한 표시가 없으면 기사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광고 표시 유무와 관련해서는 글의 형식, 바이라인 표시, 포털사이트 내 분류항목, 저작권 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임을 명시했다’거나 ‘기자 이름이 없다’, ‘객원기자라고 표시하지 않았느냐’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글(기사형 광고)을 기사와 동일하게 보았다.

한편,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본다고 하여 언론사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잘못이 있어야 하고, 이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H쇼핑몰의 사업경력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별다른 확인도 없이 사업경험이 풍부한 국내 대표 쇼핑몰인 것처럼 기사화한 잘못을 지적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기사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H프라자>와 같은 식으로 영업에 심본 이용됐다. 남은 것은 인과관계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매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고 등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원고들이 H프라자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 발생한 손해 중 30%의 책임을 언론사들에 부과했다.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번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의 책임률 또한 언론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과하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언론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에 대한 대가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역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은 큰 무리가 없는,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용재의 잡문 노트

세계의 새해 음식

이용재 (칼럼니스트)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떡국을 나눠 먹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열두 시의 종이 울리면 한 번에 한 알씩 포도를 먹는다. 이러한 풍습은 1909년, 전체 면적의 1/4이 포도밭일 정도로 스페인의 포도를 책임지는 알리칸테(Alicante) 지방에서 남는 포도를 처리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소개됐는데, 이후 포르투갈을 비롯하여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퍼졌다. 열두 알의 포도는 각각의 달 또한 상징하므로, 맛에 따라 그 달이 어떨 것이라는 예상 또한 할 수 있다. 보통 시계가 열두 번 울릴 때까지 열두 알을 다 먹어야 하는데 페루에서는 열세 번째 포도알까지 먹는 풍습이 있다.

생선을 통으로 먹는 풍습도 있다. 성스러운 휴일에 육식을 금하는 가톨릭교회의 규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파생해서 덴마크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대구를, 폴란드나 독일 등에서는 청어를 즐겨 먹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염장을 통해 오랫동안 저장 및 운반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던 풍습이다. 독일에서는 잉어를 먹는데, 행운의 상징으로 그 비늘 몇 개를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닌다. 한편 동양에서는 물살을 가르는 거침없음이나 알을 통한 다산 및 풍요로움의 이미지 때문에 생선을 먹는다. 중국에서는 통으로 조리한 생선이, 일본에서는 새우나 청어 알이 새해의 전통 음식이다.

겨울 잎채소와 콩 두 가지는 돈과 닮아 새해의 전통 음식이 되었다. 케일, 근대, 양배추는 녹색을 띤 넓은 잎사귀가 지폐와 닮아 많이 먹는다. 먹는 방법이 문화권마다 다른데, 덴마크에서는 케일 스투를 끓여 설탕과 계핏가루를 뿌려 먹고 독일에서는 채 썬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Sauerkraut)'를 즐긴다. 한편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의 '소

울푸드(Soul Food)'에 빠지지 않는 진녹색 잎채소인 '콜라드 그린(Collard Green)'을 훈제 돼지 족발이나 다리 관절로 우린 국물에 넣어 스투를 끓여 먹는다.

채소가 지폐를 닮았다면 콩은 동전과 닮아 즐겨 먹는다. 렌즈콩은 이탈리아나 독일 등지에서는 돼지고기나 소시지 등과 함께, 브라질에서는 수프를 끓이거나 쌀과 함께 새해의 첫 끼니로 먹는다. 미국 남부에서도 동부콩(black-eyed pea)과 쌀로 끓여 콩밥과도 비슷한, '호핑 존(Hopping John)'이라는 음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남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식량 위기를 맞았을 때 동부콩을 발견해 연명할 수 있었던 덕분에 행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돼지의 경우 동양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서양에서는 짧은 다리를 단단히 땅에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므로 전진을 상징해서 새해 식탁에 오른다. 쿠바,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암탉의 젖을 떼지 않아 고기가 부드러운 새끼 돼지 통구이를 즐기며, 스웨덴 등지에서는 발을 단단히 땅에 디디는 이미지 때문에 족발을 먹는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새해에 만두를 먹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해가 바뀌는 자정 무렵에 빚은 만두를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그 가운데 동전이 있는 것을 먹은 사람은 재물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평소에는 즐겨 먹더라도 새해 상에만 올리기를 기피하는 음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급 식재료인 바닷가재로, 뒷걸음질이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금류 또한 행운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하므로 닭 또한 먹지 않는다. 🍗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발자취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단 출범 (1. 6.)
각종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업무협약 (MOU) 체결
(2.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19대 총선(4. 11), 제18대 대선(12. 19) 선심위
2012 상반기(4. 11) · 하반기(12. 19) 재보궐 선심위



중재위원 연수 (6. 4. ~ 6. 5.)
「효율적인 조정 · 중재기법 및 제도운용방안 모색」



정기세미나 (10. 25. ~ 10. 26.)
「영상 ·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정책심포지엄 (12. 13.)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 토론회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생 공개토론회 (2. 22.)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토론회 (6. 27.)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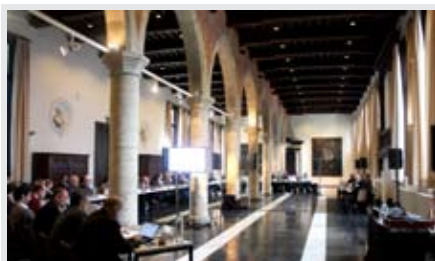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토론회 (11. 9.)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

▲ 해외 교류



중국 상하이대학교 국제포럼에 권오근 본부장 참석
(3. 22. ~ 3. 23.)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 연례회의에
정학철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등 참석
(10. 18. ~ 10. 19.)



중국국제경제무역법학연구회 연례회의에
임병렬 중재부장, 권일 위원, 박인협 위원 등 참석
(11. 16. ~ 11. 18.)



사랑의 일기 큰잔치 시상식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11월 24일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제18회 사랑의 일기 큰잔치 시상식'을 개최하여 모범학생과 지도교사, 단체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권 위원장은 "일기 쓰기를 통해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자살보도 선정성 자제 당부



권성 위원장은 12월 13일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뉴스픽과 인터뷰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자살은 흥미 있는 기사거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흥미위주의 자살보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언론에서 자살을 더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부·울·경 언론학술상 연구과제상 수상



한혜경 위원(부산중재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1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언론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지역뉴스 프로그램 시청패턴에 관한 연구'로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정교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는 12월 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빈곤 및 방임 아동의 후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정 위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신승현 위원(충북중재부, 변호사)은 12월 10일 열린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위원은 제23대 회장으로 2013년 1월 28일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현재 법무법인 청풍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독거노인·장애인가정 위해 김치와 쌀 전달



고규정 위원(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12월 6일 창원지방법원 봉사동아리인 '누리사랑회' 회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정을 위해 김장김치 50상자와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고 위원은 "법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권성 위원장, 경찰대학에서 특강



권성 위원장은 12월 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道德危險(Moral Hazard)論'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위원장은 "군사력, 도덕, 법률 중에서 혼란을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법률이다"면서, "시스템이 결여된 도덕의 실천적 요구는 위험하며, 도덕을 법률로 순화시켜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 조정위원 및 심사관 위원회 방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 및 심사관 등 10명은 12월 12일 위원회를 방문해 언론조정중재 실무 및 업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위원회를 방문한 의료중재원 조정위원과 직원은 조정중재 심리절차 및 조정중재기법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위원회의 자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초빙교육 실시



위원회는 12월 21일과 27일에 서울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초빙교육을 실시했다. 21일에는 김용주 전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27일에는 권일 중재위원(서울 제2중재부)이 "내부에서 바라본 언론사의 구조와 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위원회 사무처 송년문화행사 가져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12월 7일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송년문화행사를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서울 및 경기사무소 직원과 지역본부장이 함께 모여 휴먼코믹연극 '거기'를 관람하고 한 해를 훈훈한 웃음과 함께 마무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지원 대상기관 선정

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12 공익광고 지원사업'의 주제인 '올바른 언론문화'의 공익광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익광고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민일보 등 전국 28개 지역일간지에 게재됐다.

사무처 인사 (전보, 2013. 1. 1.자)

- | | | | |
|------------------|------------------|------------------|---------------------|
| ▶ 교육본부장 심영진 | ▶ 호남본부장 정희성 | ▶ 연속교육팀장 조남태 | ▶ 수시교육팀장 겸 홍보팀장 손정배 |
| ▶ 조사팀장 강현석 | ▶ 접수상담팀장 이진숙 | ▶ 총무팀장 이미경 | |
| ▶ 연구팀장 구윤희 | ▶ 기획팀장 양재규 | | |
| ▶ 전문위원 류석창 | ▶ 전문위원 이수중 | | |
| ▶ 조사팀 2부 조사관 김주용 | ▶ 조사팀 4부 조사관 최영훈 | ▶ 조사팀 5부 조사관 이진아 | ▶ 조사팀 6부 조사관 안백수 |
| ▶ 조사팀 7부 조사관 김문성 | | | |
| ▶ 경기사무소장 오윤미 | ▶ 경남사무소장 박혜진 | | |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보도, 기사삭제와 사과문 게재 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언론사는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가족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원 기사의 삭제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초상권 침해 사례

■ 당사자에게 촬영 동의를 받지 않은 보도, 손해배상으로 직권조정결정

B언론사는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에 관한 뉴스를 전하면서 시험에 응시한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 호 모든 내용에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중 인터뷰 ‘나눔과 봉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저 역시 이제훈 대표님의 봉사정신을 본받아서 남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전기홍)
- 시기가 시기인지라 ‘대선보도 심의 중간점검’에 관심이 갔습니다.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도 행태가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언론이 앞장서서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고쳐져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꾸준히 다루어야 할 소재라고 여기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석순자)
- ‘이용재의 잡문 노트’를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외국에서는 슈퍼만 가도 그득그득 있단 예그노그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쉽네요. 꼭 한번 맛보고 싶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처럼 눈도 펄펄 왔던 추운 날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이진희)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국민과 언론의 소통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뤄가겠습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